자영업으로의 진입과 소득 특성 :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성 재 민**

Ⅰ. 머리말

이번 정부 들어 프랜차이즈 갑질, 카드수수료, 임대료 등이 정책 의제로 떠오르면서 자영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그러나 정책이 긴요한 영역에 주된 관심이 집중되고, 관련된 단편적 통계만 주로 기사화되기에 자영업자에 대한 이미지는 영세하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창업했다 정도로 국한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서비스 부문에 집중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업과 폐업이 활발한 특징이 있지만, 시장진입에 성공해 자영업자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규모도 큰 것이 현실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존재하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일반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금근로로 치면 비정규직이나 대중소기업 격차처럼 자영업 부문에도 거래관계에서 오는 각종 갑질이나 정책 미비로 인한 여러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임금근로 부문과 유사하게 개인의 성공담과 실패담이 공존하며, 경험이 축적되어가면서 소득이 증가하다가 40대를 경과하면서 소득력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근로생애가 존재하는 부문임을 통계로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해 작성되었다. 누가 어떤 경로를 거쳐 창업하고 폐업에 이르는지, 창업과 폐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득 등 경제활동 양태는 임금근로자와 얼마나 다른지, 가구소득은 어떻게 변동하는지 등 전반적인 자영업자의 동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가장 최신자료인 19차 개인조사자료를 보면 자영업자로 응답한 사람은 1,928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49명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중 10인 미만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526명이다. 보통 자영업자 분석을 할 때 고용원이 없거나 30인 미만 고용한 개인사업자가 분석 대상이 된다. 노동패널에서는 개인사업자 여부는 명시적으로

* 이 글은 성재민 · 오상봉 · 강동우(2018), 『자영업 분석 인프라 구축 및 자영업의 동태적 변화분석』의 제3장을 요약 · 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seongjm@kli.re.kr).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30인 이상 고용한 자영업자를 파악해 보면 겨우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별도로 자영업자 규모제한을 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Ⅱ장에서는 현재 자영업자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경제활동 상태에 있었는지, 소득은 어떤지, 가구 상태는 어떤지 등을 분석하였다. 제Ⅲ장에서는 특정시점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내 자영업 경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처음부터 자영업자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임금근로자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주종이라는 제Ⅱ장의 분석을 좀 더 확장하는 장이다. 제Ⅳ장에서는 최근 자료를 이용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특성을 분석해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생애 소득 궤적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Ⅱ.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한 자영업 진입 분석

1. 자영업자들은 원래부터 자영업 일자리에서 일해 왔나?

노동패널을 이용해 2016년에 자영업자였던 사람들이 생애 몇 번째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여섯 번째 이상 일자리 비중은 높지 않으므로 무시하고, 이번 일자리가 몇 번째 일자리인지에 따라 자영업 일자리 경험횟수를 분석해 보았다. 이번 일자리가 첫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중 12.5%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 일자리라고 응답한 자영업자 중 두 번 모두 자영업 일자리인 사람은 27.7%, 임금근로 일자리를 그만두고 창업한 사람은 72.3%로 나타났다. 이번 자영업 일자리가 세 번째 일자리인 사람들 중 처음으로 자영업 일자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7%, 자영업 일자리만 한 사람은 10.6%, 한 번의 임금근로 일자리와 두 번의 자영업 일자리를 경험한 사람은 31.7%로 나타났다. 일자리 횟수가 늘어나도 대체로 임금근로 일자리 경험횟수가 더 많아서, 이번 자영업 일자리가 네 번째 일자리인 사람 중 이번 자영업 일자리가 자영업 일자리로는 처음인 사람이 44.9%, 두 번째인 사람이 32.7%였다. 이상과 같이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자영업 일자리만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를 경험해 온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로의 종사상 지위 간 이동을 분석하였다. <표 2>에서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현재 일자리 이전에 가졌던 일자리가 없을 경우 전 직장 없음이라고 되어 있다. 조사일 현재 자영업자 기준이므로, 19차년도(2016년) 개인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직전 일자리가 자영업이었던 사람은 현재 일자리에서는 31%가 상용직, 11.6%가 임시직 등

〈표 1〉 19차 개인조사자료(2016년 기준) 자영업자의 일자리 경험횟수(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

이번 일자리가 생애 몇 번째 일자리인지	생애 일자리 경험횟수 중 자영업 일자리 경험 횟수					일자리 횟수별 비중
	1회	2회	3회	4회	5회	
첫 번째 일자리	100.0					12.5
두 번째 일자리	72.3	27.7				19.4
세 번째 일자리	57.7	31.7	10.6			19.2
네 번째 일자리	44.9	32.7	17.3	5.2		15.1
다섯 번째 일자리	37.2	32.1	23.7	5.1	1.8	11.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2〉 19차년도 자영업자 기준 이전 직장에서 어떤 종사상 지위였는지(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

이전직장\현재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	무급 가족종사자	전 체
전직장 없음	67.6	11.4	3.8	11.0	6.2	100.0
	29.8	18.3	12.3	12.2	28.4	23.2
상용직 근로자	57.4	10.9	4.8	23.1	3.8	100.0
	44.4	30.8	26.8	44.9	30.6	40.6
임시직 근로자	45.7	28.9	8.8	14.0	2.6	100.0
	13.8	31.7	19.3	10.6	8.0	15.8
일용직 근로자	31.6	17.5	31.2	16.0	3.6	100.0
	3.8	7.6	27.0	4.8	4.5	6.3
자영업	31.0	11.6	8.3	43.7	5.5	100.0
	6.7	9.1	12.8	23.6	12.3	11.3
무급가족종사자	28.3	12.0	4.7	27.7	27.3	100.0
	1.6	2.5	1.9	4.0	16.1	3.0
전 체	52.5	14.4	7.3	20.9	5.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분석.

임금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비중이 50.9%로 절반을 상회했으며, 자영업으로 일하는 비중은 43.7%로 나타났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에 비해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 일할 가능성은 높지만, 같은 종사상 지위에서 일할 가능성이 57.4%인 상용직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치로 다른 종사상 지위로의 이동성이 임시, 일용직에 비해서는 낮으나 상용직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전 직장에서 상용직이었던 사람들은 현재 일자리에서는 주로 상용직이거나 자영업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시직으로의 이동은 자영업 이동 비중의 절반, 일용이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이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상용직의 경우 상용직 일자리를 못 구할 경우 자영업 선택을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으며, 자영업인 사람들은 자영업 일자리를 다음 일자리로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상용직 일자리로의 이동도 고려한다는 의미가 되겠다. 두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상용-자영 간 이동만이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시직이나 일용직은 다음 일자리로 역시 상용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임시·일용직은 그다음 고려순위로 나타났다.

19차년도(2016년)를 기준으로 자영업자인 사람의 이전 직장 종사상 지위를 보면, 이번 일자리가 첫 직장인 사람이 12.2%, 상용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44.9%, 임시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10.6%, 일용직 근로자였던 사람이 4.8%, 자영업자였던 사람이 23.6%, 무급가족종사자였던 사람이 4.0%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자영업자의 약 60%가량은 이전에 임금근로자였다는 의미이며, 이전 직장도 자영업이었거나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인 자영업자는 대략 25% 내외 정도임을 보여준다. 이번 직장이 상용직 근로자인 사람들은 이번 직장이 첫 직장인 비중이 29.8%이며, 과거에도 상용직이었던 사람은 44.4%, 자영업자였던 사람은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과 비교해 자영업자는 현재 일자리가 첫 번째 직장인 비중이 현격히 낮고, 이전 직장이 상용직이었던 비중은 소폭 높으며, 이전 직장이 자영업자였던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자영업자 창업에도 경험이 필요한 점, 또 상당한 비중의 자영업자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밀려나

〈표 3〉 각 연도별 자영업자는 어떤 종사상 지위에서 이동해 왔나(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

	첫 일자리가 이번 자영업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우측)		비임금근로에서 자영업으로	
2001	15.5		60.9		23.6	
2002	14.1		61.2		24.7	
2003	13.3		61.2		25.5	
2004	11.0		63.3		25.7	
2005	12.5		60.1		27.4	
2006	11.0		60.8		28.2	
2007	10.6		60.0		29.4	
2008	8.9		60.5		30.6	
2009	9.5	14.2	60.3	58.2	30.2	27.5
2010	8.4	12.5	61.1	59.5	30.6	28.0
2011	8.3	12.1	60.5	59.6	31.2	28.3
2012	8.5	11.8	60.9	59.7	30.6	28.5
2013	7.8	11.2	61.6	60.7	30.6	28.1
2014	7.1	10.2	62.7	61.8	30.2	28.0
2015	7.2	9.6	61.8	62.4	31.0	28.0
2016	7.6	9.3	62.1	64.0	30.3	26.7

주 : 〈표 2〉에서 농림어업, 국제기관, 가내고용을 제외한 추이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는 과정에서 창업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 등이 작용한 차이일 것이다.

<표 3>은 <표 2>에서 농림어업, 국제기관, 가내고용을 제외할 때 현재 자영업자의 이전 직장 종사상 지위가 무엇이었는지의 추이를 보여준다. 이를 보면 현재 자영업자 중 이 일자리가 첫 일자리인 비중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2009년 기준으로 노동패널의 표본이 전국 확대 표본으로 표본 확대가 있었다. 기존 표본만 이용한 추이는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숫자가 채워져 있다. 이를 보면, 이번 자영업이 첫 일자리인 사람들의 비중은 2001년 15.5%에서 2016년 7.6%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임금근로에서 자영업자로 이동한 비중은 대략 60% 초반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15년 전이나 2016년이나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 일자리에 있다가 현재 자영업 일자리로 바뀐 사람들은 2001년 23.6%에서 2016년 30.3%로 다소 증가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증가는 주로 2001~2008년 사이에 나타났고, 그 이후로는 30% 내외에서 변화가 없는 모습이다. 이를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밀려나서든 경험을 쌓아서 창업하는 것이든 전직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을 하는 비중이 60%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는 다른 비임금 근로에서 경험을 쌓아서든, 창업에 실패해 재창업한 사람이 늘어나서든 경력 창업 비중도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전직장 종사상 지위별로 창업 방식을 보면 이번이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자영업자들이 물려받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29.1%). 전직장이 무급가족종사자라고 응답한 사람도 현

〈표 4〉 2016년 자영업자의 전직장 종사상 지위별 창업방식(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

이전 직장 지위	스스로 창업	부모 등 가족에게 물려받음	기타	전 체
이번이 첫 직장	70.3	29.1	0.6	100.0
	8.5	30.7	1.3	10.3
상용직 근로자	87.1	6.8	6.1	100.0
	45.1	30.9	58.6	44.3
임시직 근로자	88.1	8.1	3.9	100.0
	11.9	9.5	9.6	11.5
일용직 근로자	92.6	4.6	2.8	100.0
	5.1	2.2	2.8	4.7
자영업자	88.9	6.5	4.7	100.0
	26.0	16.6	25.2	25.0
무급가족종사자	72.9	24.3	2.7	100.0
	3.5	10.3	2.5	4.1
전 체	85.6	9.8	4.6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5〉 2016년 자영업자 중 이전 일자리에서 임금근로자였던 사람들의 업종 변화

(단위 : %)

과거	현 재													
	1	3	5	6	7	8	9	10	11	14	15	18	기타	소계
1	93.2	0.0	0.0	3.7	3.1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14.9	0.0	0.0	0.2	0.6	0.0	0.0	0.0	0.0	0.0	0.0	0.0	0.0	1.3
3	4.5	33.9	5.2	20.9	8.3	5.2	2.6	2.3	3.9	1.0	0.5	9.7	1.9	100.0
	13.4	75.2	17.7	23.1	27.8	11.3	18.4	18.2	17.2	3.9	4.0	22.7	13.7	23.9
5	9.2	2.8	37.9	18.0	2.5	8.9	0.3	3.5	3.1	0.6	0.0	5.3	8.0	100.0
	13.0	2.9	61.2	9.6	4.1	9.3	1.2	13.0	6.5	1.1	0.0	5.9	27.4	11.4
6	5.9	2.4	0.0	65.4	6.5	6.0	1.3	0.6	2.5	3.1	0.0	4.1	2.1	100.0
	10.1	3.1	0.0	42.0	12.7	7.6	5.2	2.8	6.4	6.9	0.0	5.6	8.6	13.8
7	8.4	0.0	0.0	12.9	60.0	2.1	3.0	1.8	4.3	0.0	0.0	1.6	5.9	100.0
	4.3	0.0	0.0	2.5	35.0	0.8	3.6	2.4	3.3	0.0	0.0	0.7	7.4	4.2
8	4.6	0.0	4.6	5.3	4.2	66.1	2.3	4.5	3.8	0.0	0.0	0.7	3.9	100.0
	4.9	0.0	5.6	2.1	5.0	51.2	5.8	12.6	5.9	0.0	0.0	0.6	10.1	8.6
9	8.1	12.3	0.0	17.6	0.0	0.0	36.6	4.8	2.2	9.6	0.0	8.8	0.0	100.0
	3.8	4.3	0.0	3.1	0.0	0.0	40.5	5.9	1.5	5.9	0.0	3.2	0.0	3.8
10	8.7	0.0	5.2	9.6	4.0	0.0	2.4	43.7	6.5	9.8	4.0	6.2	0.0	100.0
	2.2	0.0	1.5	0.9	1.1	0.0	1.4	28.6	2.4	3.2	3.0	1.2	0.0	2.0
11	4.7	12.9	8.0	7.9	4.5	2.4	0.0	0.0	56.5	3.3	0.0	0.0	0.0	100.0
	2.2	4.5	4.2	1.4	2.4	0.8	0.0	0.0	38.7	2.0	0.0	0.0	0.0	3.7
13	35.0	9.9	0.0	20.1	3.9	26.7	0.0	0.0	4.4	0.0	0.0	0.0	0.0	100.0
	15.0	3.2	0.0	3.2	1.9	8.4	0.0	0.0	2.8	0.0	0.0	0.0	0.0	3.5
14	5.9	2.9	0.0	12.0	1.7	0.0	2.3	0.0	6.5	56.0	6.4	0.9	5.4	100.0
	5.8	2.1	0.0	4.4	1.9	0.0	5.3	0.0	9.4	71.4	18.8	0.7	12.8	7.9
15	7.1	3.6	4.8	6.4	3.5	1.6	1.2	2.7	2.0	7.8	53.5	3.8	2.0	100.0
	3.3	1.2	2.6	1.1	1.8	0.6	1.3	3.4	1.4	4.7	74.3	1.4	2.3	3.8
18	1.4	3.3	0.5	10.3	1.7	8.4	2.1	1.3	1.8	0.0	0.0	69.1	0.0	100.0
	1.5	2.6	0.6	4.0	2.0	6.3	5.1	3.6	2.7	0.0	0.0	55.9	0.0	8.3
19	0.0	0.0	0.0	25.2	74.8	0.0	0.0	0.0	0.0	0.0	0.0	0.0	0.0	100.0
	0.0	0.0	0.0	0.1	1.1	0.0	0.0	0.0	0.0	0.0	0.0	0.0	0.0	0.1
기타	12.2	2.5	12.3	13.7	4.9	10.9	10.7	7.6	2.5	1.6	0.0	5.9	15.2	100.0
	5.9	0.9	6.8	2.5	2.7	3.9	12.3	9.7	1.8	1.0	0.0	2.3	17.8	3.9
소계	8.1	10.8	7.1	21.6	7.1	11.0	3.4	3.1	5.5	6.2	2.7	10.2	3.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은 농림어업, 3 제조업, 5 건설업, 6 도소매, 7 숙박음식, 8 운수 통신, 9 금융보험, 10 부동산임대, 11 정보처리 연구 전문과학기술, 14 교육, 15 보건사회복지, 18 협회 수리 기타 개인, 기타는 전기가스수도,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영화 방송오락문화, 하수 청소가 포함됨. 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분석.

〈표 6〉 2016년 자영업자 중 이전 일자리에서도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였던 사람들의 업종 변화

(단위 : %)

과거	현 재													
	1	3	5	6	7	8	9	10	11	14	15	18	기타	소계
1	71.6	3.9	1.7	7.6	5.4	4.6	0.0	0.0	0.0	0.0	0.0	1.3	3.9	100.0
	43.1	5.5	2.6	3.7	3.6	5.1	0.0	0.0	0.0	0.0	0.0	2.0	9.0	9.6
3	3.1	32.2	4.5	13.6	2.9	6.7	7.1	16.5	0.0	0.0	0.0	13.4	0.0	100.0
	1.2	29.6	4.6	4.2	1.3	4.8	8.8	21.4	0.0	0.0	0.0	13.2	0.0	6.2
5	6.6	0.0	65.4	0.0	3.2	10.8	2.6	0.0	0.0	9.0	0.0	0.0	2.4	100.0
	1.7	0.0	43.5	0.0	0.9	5.0	2.1	0.0	0.0	6.0	0.0	0.0	2.3	4.0
6	9.3	6.1	7.4	46.9	7.3	5.5	2.7	4.6	2.4	0.0	0.0	5.1	2.9	100.0
	14.0	21.7	29.3	56.7	12.1	15.3	12.8	22.9	39.8	0.0	0.0	19.5	16.2	23.9
7	2.0	12.4	0.8	20.8	51.0	4.1	0.7	4.6	0.0	2.9	0.0	0.8	0.0	100.0
	1.9	28.4	2.1	16.2	54.9	7.4	2.2	15.0	0.0	7.6	0.0	1.8	0.0	15.5
8	15.0	0.0	0.0	7.0	3.9	70.7	0.0	0.0	0.0	0.0	0.0	0.0	3.4	100.0
	6.0	0.0	0.0	2.3	1.7	52.5	0.0	0.0	0.0	0.0	0.0	0.0	5.1	6.4
9	4.6	2.9	4.9	12.3	7.8	0.0	52.0	0.0	0.0	0.0	0.0	10.5	4.9	100.0
	1.2	1.8	3.4	2.6	2.2	0.0	43.1	0.0	0.0	0.0	0.0	6.9	4.8	4.1
10	6.6	4.1	5.5	3.5	5.6	0.0	11.0	35.8	0.0	11.9	0.0	15.9	0.0	100.0
	1.6	2.3	3.4	0.7	1.5	0.0	8.3	28.1	0.0	7.5	0.0	9.5	0.0	3.7
11	0.0	9.2	0.0	7.6	45.4	0.0	0.0	10.3	27.5	0.0	0.0	0.0	0.0	100.0
	0.0	3.4	0.0	0.9	7.8	0.0	0.0	5.3	46.9	0.0	0.0	0.0	0.0	2.5
14	0.0	5.5	2.6	3.6	2.8	0.0	8.5	0.0	0.0	77.0	0.0	0.0	0.0	100.0
	0.0	4.5	2.4	1.0	1.1	0.0	9.4	0.0	0.0	71.1	0.0	0.0	0.0	5.5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31.7	68.3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4.1	54.4	0.0	0.0	0.8
18	3.7	0.0	0.0	14.5	15.0	0.8	0.0	3.3	0.0	4.1	8.0	45.9	4.8	100.0
	1.3	0.0	0.0	4.0	5.7	0.5	0.0	3.8	0.0	3.8	45.6	40.2	6.3	5.5
기타	36.1	1.5	4.3	12.4	8.3	6.6	5.3	1.4	1.6	0.0	0.0	3.5	19.1	100.0
	28.1	2.7	8.7	7.8	7.2	9.4	13.3	3.5	13.4	0.0	0.0	6.9	56.3	12.4
소계	15.9	6.7	6.0	19.8	14.4	8.6	5.0	4.8	1.5	6.0	1.0	6.3	4.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1은 농림어업, 3 제조업, 5 건설업, 6 도소매, 7 숙박음식, 8 운수 통신, 9 금융보험, 10 부동산임대, 11 정보처리 연구 전문과학기술, 14 교육, 15 보건사회복지, 18 협회 수리 기타 개인, 기타는 전기가스수도, 사업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영화 방송오락문화, 하수 청소가 포함됨. 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분석.

재 자영업 일자리를 물려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전 직장이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과 이전 직장이 자영업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이번 일자리를 물려받았다고 응답한 사람 비중은 6% 내외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직장 종사상 지위별 업종 변동을 보면, 직전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도소매업에서 일한 사람 중 65%는 자영업으로 변신하면서도 도소매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직전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숙박음식점업에서 일한 사람은 60%가 자영업으로 변신하면서도 숙박음식점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제조업에서 일한 사람은 자영업으로 변신하면서 34%만이 제조업에서 일했고, 21%는 도소매업, 8%는 숙박음식점업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전에도 자영업 일자리에서 일한 사람들은 도소매업→도소매업 이동이 46.9%, 숙박음식점→숙박음식점 이동은 51%로 임금근로→자영업 전직 시보다 동종업계 유지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자영의 경우 도소매→농림어업, 도소매→제조업, 도소매→건설업 이동이 컸다. 숙박음식은 숙박음식→제조, 숙박음식→도소매가 컸다.

전직 종사상 지위별 평균 연령과 평균 지속기간을 보면, 이전에 다른 일자리가 없었다는 자영업자는 남성은 평균 51세, 이 일자리의 지속기간은 평균 21년으로, 대략 30세 근방에 시작해 20년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 56세였으며, 평균 지속기간은 약 15년으로 대략 40세 초반에 시작해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아마도 결혼, 자녀 출산 등으로 30대를 보낸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로 출발했다면 이와 같은 연령과 지속기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직장이 상용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남성의 경우 평균 연령은 51세, 평균 지속기간은 13년으로 나타나 평균적으로는 38세에 시작해 13년을 지속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표 7〉 2016년 자영업자의 전직장 종사상 지위별 연령과 지속기간(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세, 년)

이전 직장 지위	평균 연령		평균지속기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이번이 첫 직장	51	56	21.4	14.9
상용직 근로자	51	48	13.0	8.7
임시직 근로자	49	46	10.4	5.5
일용직 근로자	58	55	15.0	9.6
자영업자	55	53	11.1	8.0
무급가족종사자	55	54	13.6	11.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2.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도 과거에 비해 다소 변화가 있었다. 과거

에는 미취업이거나 가구주의 일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일 가능성이 거의 80%(=45.8+33.5%)였다면, 여전히 미취업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2001년 45.8% → 2016년 40.3%로 5.5%p 남짓 떨어졌으며, 무급가족종사자일 가능성은 2001년 33.5% → 2016년 21.0%로 크게 떨어졌다. 대신 상용직 근로자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은 2001년 11.8%에서 2016년 22.3%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주가 자영업자인 경우 배우자가 미취업인 비율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미취업이 아니라면 가구주를 도와 배우자도 일을 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감소했고, 대신 근로자로 맞벌이화하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의미가 되겠다.

〈표 8〉 가구주가 자영업자일 경우 배우자의 종사상 지위별 비중(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

	미취업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 가족종사자
2001	45.8	11.8	3.1	0.8	5.0	33.5
2002	44.1	13.2	3.2	1.3	6.3	31.9
2003	45.1	14.0	2.7	1.6	5.7	30.8
2004	43.4	13.1	2.4	2.7	5.2	33.2
2005	46.1	13.6	2.3	3.2	6.0	28.9
2006	44.1	13.8	2.7	3.2	6.8	29.3
2007	44.8	15.0	2.9	2.2	7.8	27.2
2008	44.0	15.7	3.8	2.0	7.6	26.8
2009	44.2	14.0	5.8	2.3	8.4	25.3
2010	41.6	14.6	6.1	1.8	9.7	26.3
2011	42.6	16.0	6.7	1.9	8.9	23.9
2012	39.9	17.6	6.3	2.4	9.3	24.5
2013	41.6	16.1	6.1	2.2	9.0	24.9
2014	43.6	16.6	6.5	1.7	7.8	23.8
2015	43.0	19.2	6.2	1.8	7.9	21.9
2016	40.3	22.3	5.4	1.8	9.2	21.0

주 : 농림어업, 국제기구, 가구내 고용은 제외한 수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Ⅲ.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경험

다음으로는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를 활용해 2010년 1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후 약

7년간 추적할 때 자영업을 경험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특성별로 확인해 보았다.

2010년 임금근로자 11백만 명 중 약 11.6%가 자영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연령 기준 남성은 청년이 11.0%, 30대가 13.9%, 40대가 13.8% 등으로 나타나 주력 연령층에서 자영업 창업이 활발하고 60세 이상은 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도 크게 다르지 않아 자영업 창업은 30대와 40대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수치는 아직까지 확충 중에 있는 경제활동등록부를 이용해 확인한 수치이므로 노동패널로도 결과를 다시 확인해 보았다.

노동패널로 보아도 노동시장 주력연령대에서 창업이 활발한 것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약 10년을 추적해 볼 때 12%의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당시 청년, 30대, 40대의 자영업 경험률이 10% 초반대로 균일하게 나타나 주력 활동 연령대에서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청년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10% 내외 창업률을 보

〈표 9〉 2010년 1월 임금근로자 중 2016년 12월까지 자영업을 경험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단위 : 명, %)

		전체 임금근로자	자영업 경험자	비중
전 체		11,604,615	1,343,102	11.6
남성	15~29세	1,237,831	136,145	11.0
	30대	2,436,978	338,842	13.9
	40대	2,043,773	282,230	13.8
	50대	1,190,752	150,271	12.6
	60세 이상	465,774	35,876	7.7
여성	15~29세	1,264,612	91,544	7.2
	30대	1,248,024	135,054	10.8
	40대	1,049,648	121,573	11.6
	50대	520,206	44,490	8.6
	60세 이상	146,769	7,071	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등록부」, 필자 계산.

〈표 10〉 2007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 취업자의 연령대별, 성별 향후 2016년까지 자영업 경험 비중

(단위 : %)

2007년 연령	남성	여성	전 체
15~29세	14.3	7.3	10.3
30대	14.6	10.5	13.3
40대	14.5	11.5	13.3
50대	12.2	10.7	11.7
60세 이상	5.2	11.7	7.5
전 체	13.5	9.9	12.1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인다는 점에서 남성과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고용원 유무별로 나누어 보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의 창업은 좀 더 청년-40대, 즉 10년 뒤이므로 청년-50대 초중반 사이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창업은 남성은 은퇴연령대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 고루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차이가 없는 창업률을 보였다. 투자위험이 있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창업은 주력연령계층에서 활발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으로의 진입은 남성은 여전히 고연령층에서는 활발하지 않지만 여성은 전 연령대에서 활발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나라 연령대별 자영업 분포하고는 많이 다르다. 연령대별 자영업 비중을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모습이다. 두 결과를 연관 지어 해석해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현상은 젊어서부터 진입해 자영업 부문에 누적된 인원이 고연령대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고연령대일수록 자영업 부문에 진입이 활발해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는 해석이 합리적이다. 즉,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고연령대에 자영업에 진입하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자영업 진입이 적거나 젊은 연령대와 비슷한 수준인데(여성 고용원 없는 자영업), 젊어서 진입해 자영업 부문에 정착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이 자영업 부문에서 지속 활동한 결과 나타난 현상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을 떠올릴 때 흔히 생각하는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밀려나 근근이 자영업 일자리를 영세하게 하고 있는" 근로계층이라는 이미지는 일부만 사실이고, 현실의 자영업자 중 또 다른 일부는 젊어서부터 자영업 부문에 뛰어들어 자리 잡는 데에 성공해 소득활동을 지속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업종으로 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자영업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은 10.6%만이 자영업을 경험한 반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농림어업 19.3%, 도

〈표 11〉 2007년 조사 당시 임금근로 취업자의 연령대별, 성별 향후 2016년까지 고용원 유무별 자영업 경험 비중(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계
15~29세	5.4	1.9	3.4	9.9	6.1	7.7
30대	7.5	2.8	6.0	9.2	7.6	8.7
40대	6.0	3.2	4.9	8.6	7.2	8.1
50대	2.2	1.4	1.9	10.1	8.3	9.5
60세 이상	0.5	0.8	0.6	5.2	6.7	5.7
전 체	5.4	2.3	4.1	9.1	7.1	8.3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12〉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본 연령별, 연도별 자영업 비중(가중치 부여 후 결과)

(단위 : %)

	농림어업 포함			농림어업 제외		
	2004	2010	2017	2004	2010	2017
15~29세	5.9	5.0	4.0	5.9	5.0	4.1
30대	21.7	15.3	13.1	21.3	15.0	12.8
40대	33.2	25.3	21.9	32.0	24.4	21.4
50대	39.0	33.5	27.9	35.5	31.2	26.3
60세 이상	51.5	45.5	37.7	39.3	34.2	29.5
전 체	27.2	23.5	21.3	24.0	20.7	19.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필자 계산.

〈표 13〉 2007년 임금근로자의 근무 업종별 2016년까지 자영업 경험 비중(가중치 부여 후 결과)

2007년 임금근로자의 취업 업종	자영업 경험 비중
농림어업	19.3%
제조업	10.6%
건설업	13.2%
도소매업	14.4%
숙박음식업	15.7%
운수통신업	13.7%
금융보험업	9.2%
부동산임대업	11.4%
정보처리 연구 전문 과학 기술	12.9%
교육	12.1%
보건사회복지	8.6%
협회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	18.2%
기타	8.5%

주 : 기타는 전기가스수도, 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영화 방송오락문화, 하수 청소가 포함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소매업 14.4%, 숙박음식업 15.7%, 협회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18.2% 등으로 나타났다.

Ⅳ. 자영업자의 소득 : 임금근로자와의 비교 분석

다음으로 이전직장 지위별 자영업자의 소득 등을 분석하였다. 현재 고용주부터 보면, 이번이 첫 직장이라고 응답한 고용주의 이번 일자리 평균 소득은 509만 원, 상용직이었을 경우 550만

원, 이전에도 고용주였을 경우 519만 원 등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많은) 이번이 첫 직장, 전직 상용직, 전직 고용주는 비교적 높은 소득을, 전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체 고용주의 평균 소득은 505만 원, 중위값은 400만 원이었다. 이번 일자리의 평균 지속기간은 대부분 8년 이상으로 길게 나타났다.

〈표 14〉 2016년 현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이전 직장 지위별 현재 일자리 소득, 근속기간

이전 직장 지위	이번이 첫 직장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번 일자리 평균 소득(만 원)	509	550	389	316	519	366
이전 직장 평균근속기간(년)	-	5.3	3.2	2.5	5.0	5.9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 소요기간(년)	-	0.4	1.4	0.8	0.4	0.1
이번 직장 근속기간(년)	18	12	9	10	9	13
이번 직장 중위 소득(만 원)	375	400	300	300	400	350
이전 직장 중위 근속기간(년)	-	2.9	1.6	1.6	2.4	3.5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 사이 중위기간(년)	-	0.1	0.0	0.1	0.1	0.0
이번 직장 중위 근속기간(년)	16	9	7	12	8	13
이번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인지(평균)	1	4	5	5	4	4
평균 종업원수(명)	4.4	5.9	2.6	2.3	2.9	2.2
중위종업원수(명)	2	3	2	2	2	1

주 : 기간은 년, 소득은 만 원, 종업원 수는 명. 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대부분 이번 직장은 평균 4~5회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종업원수와 중위종업원수로 보면 대체로 5인 미만 업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대부분 평균소득이 고용주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이 첫 직장이라는 자영자는 223만 원, 전직 상용직은 279만 원, 전직 고용주는 302만 원 등이었다.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241만 원, 중위값은 200만 원이었다. 재직기간은 대부분 10년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번이 대체로 4~5회째 직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의 연령-소득 관계를 비교해 보았다. 19차년도(2016년) 단년도 자료를 이용해 회귀분석한 결과와 17~19차년 개인조사자료(2014~2016년 자료)를 합쳐 패널회귀분석한 결과를 보면 자영업 부문과 임금근로 부문의 임금-소득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다르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영업 일자리가 임금근

〈표 15〉 현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이전 직장 지위별 현재 일자리 소득, 근속기 - 현재 일자리는 2016년 기준

이전 직장 지위	이번이 첫 직장	상용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고용주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이번 직장 평균 소득	223	279	202	194	302	229
이전 직장 평균 근속기간	-	5.8	1.9	4.7	6.3	2.8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 소요기간	-	0.6	1.3	0.3	0.9	2.4
이번 직장 근속기간	21	11	8	15	11	11
이번 직장 중위소득	150	200	200	150	250	200
이전 직장 중위 근속기간	-	3.7	1.4	2.9	3.9	1.7
이전 직장과 이번 직장 사이 중위기간	-	0.1	0.3	0.1	0.1	0.5
이번 직장 중위 근속기간	18	9	6	13	10	8
이번 직장이 몇 번째 직장인지(평균)	1	4	5	5	5	5

주 : 기간은 년, 소득은 만 원, 종업원 수는 명. 가중치 부여 후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표 16〉 연령과 자영업 여부, 소득 관계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1) 선형회귀 : 19차 개인조사자료	(4) 패널고정효과 : 17~19차 개인자료
연령	0.122*** (0.00381)	0.101*** (0.0139)
연령제곱	-0.00143*** (4.17e-05)	-0.000660*** (0.000162)
자영업 여부(기준 : 임금근로)	-0.00139 (0.255)	-0.748 (0.683)
자영업 여부 × 연령	0.00587 (0.00976)	0.0434 (0.0313)
자영업 여부 × 연령 제곱	-5.00e-05 (9.22e-05)	-0.000579 (0.000355)
여성(기준 : 남성)	-0.465*** (0.0161)	
자영업 여부 × 여성	-0.0542 (0.0364)	
상수항	3.135*** (0.0834)	2.278*** (0.296)
관측치수	7,242	19,158
R-squared	0.320	0.031
패널 개인수		7,821

주 : *** p<0.01, ** p<0.05, * p<0.1. 괄호 안은 표준오차. 연도 고정효과 통제.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원자료, 필자 분석.

로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자리가 아니라 임금근로 일자리와 유사하게 성공스토리와 그렇지 않은 스토리가 뒤섞인 일자리의 한 유형이어서 임금근로 일자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연령-소득관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Ⅴ. 맺음말

지금까지 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자영업 진입과 소득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이 장의 분석을 통해 자영업 진입은 주로 임금근로 경력을 경유하면서 이루어진다는 점, 흔히 떠올리는 것처럼 자영업 일자리가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대거 창업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아니며 주력 경제활동연령층에서 진입해 만들어지는 일자리 특성을 가진다는 점,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밀려난 중장년층 중심이라면 나타나기 힘든 임금근로자와 유사한 연령-소득 곡선을 보인다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재 자영업자는 상당한 정도의 근속기간을 보이며(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두 배 이상), 고용주의 경우 상당한 수준의 월소득을 올리고 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보다 훨씬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특히 이번이 첫 일자리인 (아마도 물려받은) 고용주, 전직 상용직인 고용주, 전직 고용주인 고용주처럼 투자력이 상대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집단의 소득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에 대해 밀려난 일자리, 보호의 대상이거나 이미 포화상태라 구조조정의 대상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현실의 모습은 임금근로 시장과 유사하게 성공스토리와 그렇지 않은 스토리가 공존하는 모습에 더 가까울 수 있다. 임대료 규제와 같이 지대추구를 좀 더 어렵게 하는 정책, 자영업자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질 수 있게 돕는 정책은 자영업 부문의 소득력 상승을 돕는 좋은 정책일 것이며, 40대 초반을 지나 소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임금근로 부문에서나 자영업 부문에서나 공히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 할 것이다. KLI